

제60회 합격자 송예림	
사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3학년 재학 중 2021.2월 진입, 한학기 학교 병행 후 2년 휴학 1차 1번, 2차 2번 합격 선택과목: 디자인보호법

키워드: 기득 합격, 상표 고득점, 전체 16등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변리사 60기로 합격한 송예림입니다. 통상의 기득으로써 남들과 다를 것 없는 공부를 했던 제가 합격하게 되어 공부방법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수기가 수험생분들께 자신감을 심어주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II. 변리사 시험 진입

제가 변리사 시험 진입을 결정하게 되었던 2020년 말~2021년 초에 학과 친구들의 대부분이 약대 편입 시험을 준비하거나 반수, 교직 신청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학과 분위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로 탐색을 하게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하던 친한 대학 친구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로들이 무엇이 있을지 A4 용지에 쪽 적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가 변리사라는 직업이었고, 8대 전문직에 해당되며 학사 졸업을 해도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이점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한 번 도전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험 기간이 3~4년이라는 말을 듣고 몇 주를 고민하며 마음 고생을 하다가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 공부 방향이 정해져 있어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보다 더 편안 한 마음으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당시 먼저 약대 편입 시험을 준비하던 쌍둥이 동생이 약대 진학에 성공하여 저도 변리사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에 민법 강의를 결제하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III. 시기별 공부방법

### 1. 초시 (2021년 2월~ 2022 2월)

#### (1) 공부 방향성

법과목과 자연과학을 모두 대비해야 해서, 개인적으로는 2차 공부보다 객관적인 공부량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1차 공부의 방향성은 1. 최대한 빠르게 진도를 나가기. 2. 무한 회독이었습니다.

#### 1. 최대한 빠르게 진도 나가기

대부분의 이과생들은 법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민법과 특허 상표 디자인의 기본 강의만 합쳐도 대략 200-300강은 되기에 초반에 빠르게 진도를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민법은 김동진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4~5주 내로 들으며 하루에 적게는 4강, 많게는 6강 정도를 들었습니다. 특허는 임병웅 변리사님을 들으며 3주 내로 들었고, 상표는 박종태 변리사님의 강의를 2주 내로, 디자인보호법은 김웅 변리사님의 강의를 1주일 이내로 들었습니다.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강의 들은 것과 "진짜 공부"는 다른 것인데, 진짜 공부란 들은 강의를 기본서를 통해 다시 익히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입니다. 6강 정도 들은 날에는 양이 상당하므로 "진짜 공부"를 하는데 강의 듣는데 걸린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본서에 다시 정리하고, 노트 필기를 참고하며 단권화와 함께 회독을 하였습니다. 다음날에는 진도를 나가기 전 반드시 전날 배웠던 강의를 복습하고 들었습니다.

## 2. 무한 회독

회독은 기본 강의를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민법 기본서 회독은 특히 기본 강의를 들을 때도 당연히 병행했습니다. 이후 상표 기본 강의를 들을 때도 민법, 특허 회독을 병행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과목의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앞서 완강한 과목들의 기본서를 누적하며 회독을 병행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매일 4법의 기본서 할당량을 회독하면서 풀었습니다. 처음 회독 시에는 한달 이상이 걸리나, 5회독이 넘어가면서 이해가 되는 파트들은 금방 읽히기에 회독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파트들은 따로 표시해두고, 하나씩 정복해나가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이후 회독 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 2월 말에는 일주일 내에 전과목 기본서 회독이 가능해졌고, 시험 전날에도 전과목 1회독이 가능했습니다. 시험 직전의 회독은 정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눈에 바르는 속독입니다. 대부분의 합격수기에서도 말하듯이 법과목은 누가 수험 기간동안 많이 깊게 공부했느냐 보다, 전날 무엇을 보고 들어갔는지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날 최대한 눈에 많이 발라놔야 하므로 수험기간의 목표가 전날 1회독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 하루에 4법 전부 다루기

4법 기본강의를 모두 들은 이후에는, 하루에 4법 모두를 회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합격생마다 다른 것 같으나, 저의 경우 시험 전까지의 최종 회독 수를 정해놓고 이를 남은 기간동안 맞추기 위해서는 4법을 모두 회독해야 계획을 달성하기에 수월했습니다. 또한 민법을 제외한 산재법은 공부를 하다보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산재법을 하루에 같이 공부하면 각각을 공부할 때는 몰랐던 큰 흐름을 알 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4법을 최대한 전부 회독하고 객관식을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2. 동차 (공부 방향성 잡기)

동차 때는 2차 공부의 방향성만 제대로 잡아도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2차 공부는 크게 3 종목으로 나뉩니다.

### 1. 이해 2. 암기 3. 쓰기

먼저 이해와 암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해와 암기는 별개의 것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상호적인 애들이어서,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고 암기가 돼야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동차 초반에는 해당 작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5월까지는 4법의 기본서를 최대한 회독하시되 매일 할당량을 정하여 암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할당량을 매일 혼자 의지로 암기하기 벅차면 암기 스터디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특허는 박형준 변리사님의 총알을, 상표는 선배에게 받은 두문자를, 디자인보호법은 정다운 변리사님의 교재를 할당량을 나누어 비대면 암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암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박형준 변리사님의 준특허법의 경우 430 페이지 가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3월 한달 평일 약 20일 동안 (주말에는 qs를 들어야 하므로) 회독을 목표로 매일 21~22페이지를 회독하시고 암기량은 동차용 암기자료로 판례 5개씩 암기하는 식으로 회독 계획과 암기 계획을 별도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마 암기 계획이 더 금방 끝나실텐데, 이때도 쉬지말고 암기 사이클은 계속 돌리셔야 합니다. 하다보면, 기본서 회독시에 아 이 부분 암기했던 건데 꼼꼼하게 읽어보니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겁니다. 특히 판례를 읽으시면 내가 처음 읽었을 때 이해했던 내용과 달랐던 내용들이 계속 발견될텐데, 처음 공부가 탄탄했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저 역시 기득 막바지까지 그런 판례들이 정말 많았으니 걱정마시고 최대한 시험 전까지 정확하게 이해한 판례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차 때 최대한 주요 판례들은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문자가 입에 불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 한번 각인되면 쉽게 잊혀지지 않기에, 시험장에서 긴장한 상태에서도 두문자는 줄줄 나오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쓰기는 이해와 암기가 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동차 분들의 경우 5~6월부터 쓰기가 가능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처음 쓰기를 시작했던 3월이 굉장히 고됐습니다. 문제도 이해가 안가는데, 옆에 사람들은 쓰

고 있고 목차는 대체 어떻게 잡는 것인지 싶었습니다. 이때는 답안지를 통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있는 목차들은 대부분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해당 문제의 논점은 이것이고 기본서에서는 해당 논점의 목차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답안지에 이런 목차를 쓴 것이구나” 라는 이해도를 길러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에서 목차만 잡는 연습을 하신 후, 목차 내에 있는 내용을 앞선 3~5월동안 이해와 암기를 통해 채워 넣으시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동차 때 기초 gs를 포함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2gs를 썼습니다.

### 3. 기득

기득 때는 과목별로 공통적으로 공부했던 것과, 차이를 두며 공부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1) 공통되는 공부방법- 책 통암기

동차 때는 시간이 없기에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주요 판례 위주로만, 즉 나무 위주로만 암기 했다면 기득 때부터는 책의 전체 목차와 목차 하부에 있는 논점들, 그리고 판례 위치, 즉 숲까지도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책을 통 암기해야 하는 건데, 암기와 회독은 별개이며 암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소 윤곽 교재를 봤어서, 윤곽을 예시로 들자면 처음에는 하루에 3개의 테마씩 통 암기를 했습니다. 해당 테마가 어떤 큰 목차가 있는지를 암기한 후, 각 큰 목차 안에 몇 개의 논점이 있으며 그 논점 하부에는 어떤 판례가 몇 개 있고, 판례의 두문자는 어떤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좁혀가며 암기를 합니다. 이후 자기 전에 백지에 가볍게 오늘 어떤 파트를 암기 했는지를 적어 가며 백지 복습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파트 암기를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에는 암기량이 많아져 암기 속도가 느리지만, 해당 판례의 위치와 쓰임새까지 기억할 수 있어 시험을 풀 때 판례 추출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필속으로도 이어진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암기를 해 gs나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을 때 머릿속으로 기본서를 후루룩 훑는 느낌으로 떠올려가며 시험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4법 모두에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암기 방법은 59기 수석도 적용하셨던 방법이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2) 과목별 공부방법- 사례집과 판례집 여부

민사소송법은 법 특성 상 같은 논점도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방식이 다양하고, 처음보는 문제를 풀 때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사례집과 gs, 모의고사를 푸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창한 강사님의 사례집과 핸드북, 박준형 변리사님의 사례집 총 3권을 풀었고, gs는 총 8세트를 풀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려고 노력했고, 이 덕분에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가 나와도 이미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습니다. 판례집은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은 박형준 변리사님의 판례집을 보기는 했으나, 별 3점 이상짜리 주요 판례의 흐름만을 발췌하며 읽어 이해 위주로 가볍게 봤습니다. 사례집을 밀도 있게 봤는데, 박형준 변리사님의 사례강의를 1,2월에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스태워치를 이용해 시간을 재가며 수업 진행과 함께 목차 잡기 연습을 했습니다. 완강을 한 후에는 다시 한 번 혼자 회독하면서 목차 잡기 연습을 했고 반복하면서 계속 틀리는 문제들은 별도로 표시하여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목차를 잡았습니다. 판례집보다 사례집에 더 비중을 크게 두며 공부했습니다.

상표법은 한경훈 변리사님과 최지환 변리사님의 판례집을 봤습니다. 상표는 판례를 읽을 때 1. 사실 관계 2. 사용된 판례 내용 3. 판례에서의 사안 포섭 방법을 별도의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며 읽었고, 특히 판례에서의 사안포섭에 집중하며 읽었습니다. gs를 풀면서도 판례에서의 사안포섭을 내가 막힘없이 현출할 수 있는지 연습하였고 최신판례나 S급 판례들은 판례에서의 사안포섭 순서까지 암기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례집도 풀기는 했으나 조치 연습을 위해 풀었고 판례집에 더 비중을 크게 두며 공부했습니다.

#### IV. 과목별 공부방법

##### 1. 1차

##### 1) 민법: 59회 85점

0. 책 정리 1. 기본서 다회독 2. 같은 문제 반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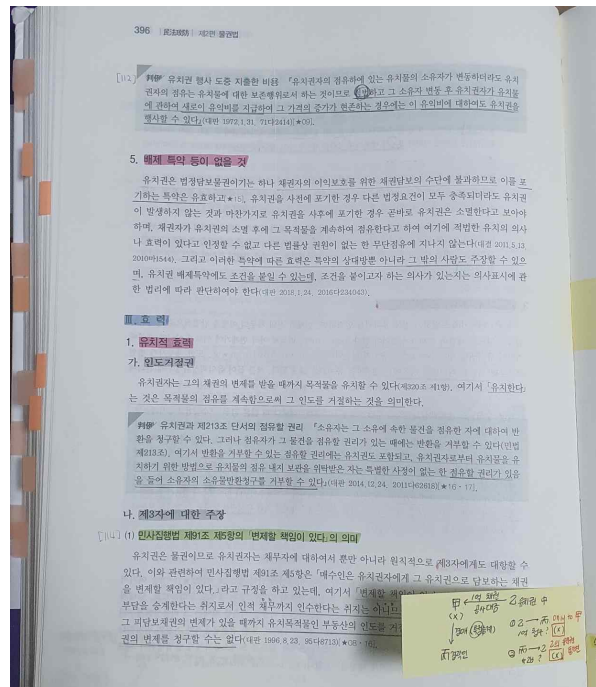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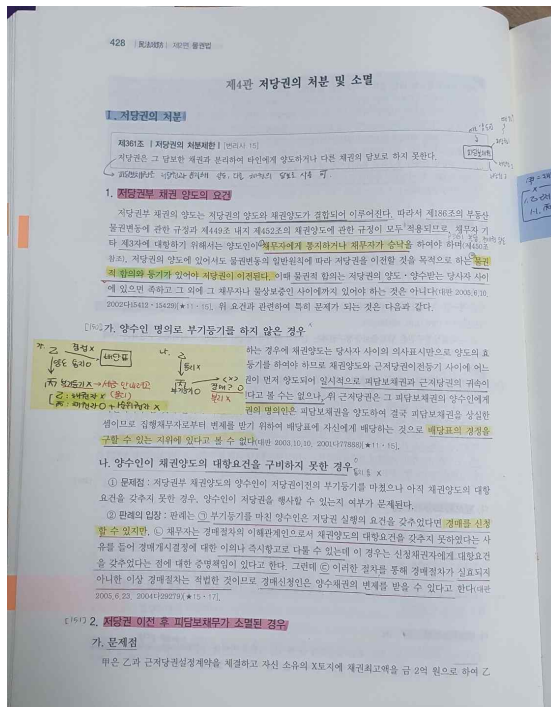
0. 책 정리 및 필기 단권화

책 정리와 필기 단권화는 효율적인 회독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선, 책 정리란 대목차, 소목차, 세부 목차 별로 형광펜 색을 달리하여 책의 가독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이때 색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원 내에 어떤 대목차가 있고, 각 대목차 하부에는 소목차가 몇 개, 무엇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과정입니다. 진도를 나가기 전에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볼 수 있고, 회독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목차 아래의 개념들을 읽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 정리는 민법 외에 1, 2차 모든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필기 단권화는 민법 판례 중 줄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관관계를 필기노트를 참고하여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여 넣는 작업입니다. 이해를 위해 하단에 사진을 첨부합니다.

또한, 시험 직전 달에는 회독을 하면서 시험전날 주의 깊게 봐야할 내용들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쳤고, 시험 전날에는 해당 부분만 빠르게 회독하였습니다.



##### 1. 기본서 다회독: 민법공방 20회독

책 정리를 하고 강의를 다 들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기본서를 회독하였습니다. 저는 쌍방기를 싫어했고, 특히나 1차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독을 차차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양이 쌓이게끔 했습니다. 따라서 1차 공부를 할 때 의식하면서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의 경우 시험 전까지 20회독 가량을 했는데 회독 초기에는 밀도 있게 회독하여 2페이지 읽는데 20분 넘게

걸리기도 했으나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가볍게 회독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기에 민법 총칙을 꼼꼼하게 읽고 암기하려 노력해도 물권, 채권 파트에 가서는 까먹기 일쑤여서, 후반으로 갈수록 회독속도를 내어 읽었던 내용이 휘발되기 전에 다시 쌓이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사실관계 이해가 요구되기에 항상 회독하면서 옆에 이면지를 두고 갑과 을의 관계와 건물, 토지 등을 그리면서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 2. 같은 문제 반복 풀이: 민법공방연습 6회독

기본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는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공방연습만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민법공방연습은 변리사 기출 외에도 변호사 시험 기출 등이 있어 난이도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공방연습만 마스터해도 변리사 시험에서 100점 맞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풀이를 할 때는 별도의 노트에 매일 할당량을 정하여 풀었습니다. 3의 배수별로 (3n, 3n+1, 3n+2) 문제를 풀어서 최대한 빠르게 전 범위를 훑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회독 시와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풀었고, 틀렸던 문제들은 바를 정자를 옆에 표시하며 틀렸던 횟수를 체크했고 시험 전에도 틀렸던 횟수가 가장 많았던 문제부터 체크하며 자주 하는 실수에 유의하고자 했습니다.

## 2) 산업재산권법: 59회 90점 (특허, 디자인 각각 2개씩 틀림)

### 1. 특허법

- 회독 및 복습: 특허법은 임병웅 변리사님의 강의를 들었고, 리담 특허법은 수업 수강 중에만 밑줄 그어가며 읽었으며 회독 교재로는 도해 특허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1차 시험 전년도 도해 특허법을 구해서 회독했어서, 추록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도해 특허법의 장점으로는, 특허법의 전체 흐름을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법은 민법과 달리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공부 접근 방법을 달리했는데, 본격적인 회독 전에는 항상 특허법의 전체 개괄을 백지에 떠올려가며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회독하는 내용이 어떤 단원 하에 있는 내용인지를 인지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하단에 사진을 첨부합니다.
- 객관식 및 기출 풀이: 객관식 문제는 임병웅 변리사님의 특허법 객관식과 시험 직전에는 홍기석 강사님의 해례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1차에서의 산업재산권법은 지엽적이고 괴랄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어렵다고 소문난 책들 위주로 반복 풀이했습니다. 1차 공부 시에는 최대한 빨리 객관식 풀이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 특히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공부한 내용과 실제 푸는 문제간에 괴리가 좀 있어 (예를 들어, 특허청장인지 특허심판원장인지나 30일인지 한달인지를 고르는 문제)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객관식 풀이 진입이 빠를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객관식도 5회독 가량 회독을 하였고 민법과 마찬가지로 틀리는 문제들은 바를 정자를 써가며 시험 전에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순대로 다시 풀었습니다. 기출은 최근 45회부터 58회까지 매일 1세트씩 풀었습니다. 기출은 대략 7회독 가량 했습니다.
- 조문: 산재법은 조문을 이용해 지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허, 상표, 디자인 각 법을 공부 끝내기 직전에 1회독씩 요일을 번갈아 회독하였습니다. 월요일은 특허, 화요일은 상표, 수요일은 디자인, 다시 목요일은 특허 이런 순대로요. 처음 조문 회독 시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객관식과 병행하다 보면 어떤 파트에 집중해서 읽어야하는지 자동으로 알게 되기에 회독 시간도 단축됩니다.



상표법을 이용했습니다. 도해 상표법에는 단권화를 위해 박종태 변리사님의 기본 강의 필기 노트에 있는 상표 사진이나 타임라인이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잘라 도해에 끼워넣는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보다 상표가 더 어려워서 중급 강의도 별도로 수강하기는 했고, 덕분에 2차 공부에서의 상표 공부방법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 객관식 및 기출 풀이: 객관식은 박종태 변리사님의 객관식 책이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알아서 김영남 변리사님의 객관식 책을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기출도 45회에서 58회까지 1세트씩 반복하며 풀었습니다.
- 조문: 특허와 마찬가지로 요일을 돌아가며 회독했습니다.

### 3. 디자인보호법

- 회독 및 복습: 김웅 변리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갔습니다.
- 객관식 및 기출: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 교재에 있었던 객관식만 반복하여 풀이했고, 기출도 10개년을 반복하며 풀었습니다.
- 조문: 특허, 상표와 마찬가지로 요일을 돌아가며 회독했습니다.

## 3) 자연과학 : 59회 85점 (화학 4개, 생명 1개, 지구과학 1개 틀림)

### 1. 물리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신 4등급을 받을 정도로 물포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변리사 시험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용욱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수업 중간에 강사님이 문제풀이를 하기 전 강의를 정지시키고 문제를 혼자 풀어보며 개념을 완전히 숙지했는지를 확인한 후 풀이를 확인했습니다. 강의를 이어서 수강하기 전에 반드시 앞서 배웠던 개념 파트의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물리도 공식이 많아 휘발성이 있으므로 까먹지 않게끔 노력했고, 빠르게 완강한 이후에는 A4 3장 분량 정도에 모든 공식과 유도 과정을 적어 이를 반복하여 봤습니다. 시험장에서도 해당 노트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객관식 풀이도 손용욱 강사님의 600페이지 가량의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6회독 하며 풀었고, 오픈채팅방에 올려주시는 자료들도 따로 풀었습니다. 기출도 5회독 가량 하였습니다. 결국 물리도 법과목과 같이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여 풀었고 공식을 회독하는 방향으로 공부했더니 물리 만점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 화학

화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잘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화학 감각이 거의 없어서 걱정이 제일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한빛 강사님의 강의로 듣다가 도저히 문제풀이가 안돼서 원동신 강사님의 화학강의를 다시 수강하였습니다. 화학도 물리와 마찬가지로 A4 3장 분량 정도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이를 반복하여 회독했고, 원동신 강사님의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회독하였습니다.

### 3. 생명

생명과학 전공이라 베이스가 있어 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TB 객관식 책을 반복하여 풀고 기출 반복 풀이했습니다.

### 4. 지구과학

지구과학이 제일 힐링되었던 과목이었습니다. 박준희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으며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 필기노트를 반복하여 회독했고, 기본서에 있는 객관식을 반복 풀이했고 기출도 반복 풀이했습니다.



#### 4) 기타

모든 과목이 휘발성이 많기에, 최대한 하루동안 4법을 모두 회독하고 자연 과학은 2과목씩 묶어서 공부하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1차 공부 시에는 반드시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11시간~12시간씩 매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 주에는 13~14시간 가량 공부했습니다.

### 2. 2차

1) 민사소송법 : 동차 18쪽- 65점, 기득 21쪽- 57.66

#### 0. 책 통암기

동차 때 통합을 보다가 빠른 회독을 좋아하는 제 성향상 책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득 때는 윤곽으로 봤습니다. 윤곽의 장점은 각 테마별로 정리되어있고, 테마 내에 어떤 목차와 논점이 있는지를 책의 가장 상단에 짧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소도 산재법과 같이 절차적인 성향이 강하고 1차때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공부를 했던 제게는 잘 맞았던 터라 동차 발표가 난 후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심화강의를 들으며 윤곽에 단권화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단권화를 완료한 후에는 윤곽 테마를 매일 3개 씩 (예를 들어, 신의칙, 재판권의 인적범위, 재판권의 물적범위를 묶어) 암기를 했습니다. 암기 시에는 책의 전체 목차와 각 판례의 두문자를 그대로 외워서 통암기를 했고 다음날 오전에 추가적인 회독을 나가기 전에 책의 가장 앞에 있는 목차집을 보며 백지에 어제 외웠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적어보는 작업도 했습니다. 5월에는 4주동안 암기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시험 직전에는 5일동안 암기 사이클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회독은 별개로 병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gs를 풀면서 책의 페이지가 머릿속으로 넘어가는 일을 경험하실 수 있고 문제를 풀면서 어떤 판례를 적어야할지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 1. gs 및 사례집 풀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민사소송법은 같은 논점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기에 문제풀이를 많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2022년 이창한 강사님의 기초 gs, 양진하 실전 gs, 광준형 실전 gs를 목차만 잡으며 다시 풀어봤고 2023년 광준형 실전 A,B 양진하gs, 이창한 기초 gs, 이창한 실전 A,B를 수강하였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 이창한 강사님의 책을 메인으로 보면서 윤곽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로 넣었고 2022년 이창한 강사님의 핸드북과 광준형 강사님의 사례집은 목차만 잡아봤습니다. 다른 합격생 분들에 비해 문제풀이를 많이 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 2. 조문 위치 기억하기

2차 때는 시험장에서 법전을 나눠주기 때문에, gs 작성시 법조문을 찾아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빠르게 조문을 찾는 연습도 했습니다. 개인 법전을 구비하여 산재법과 민소법 파트만 뜯어 책자로 만들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며 자주 사용되는 법조문 (2조,5조,56조, 63조 등등) 은 조문번호에 노란색 형광펜을 칠해 위치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전년도 법전과 올해 법전이 다행히 바뀐 게 많지 않아 시험장에서도 빠르게 조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3. gs 등수 및 단권화

기득 때 신경 쓰려 하지 않아도 기분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gs 등수였고 합격자 분들의 합격년도 등수가 궁금했습니다. 저의 경우 모든 gs를 매번 20~30% 대 사이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gs 복습은 3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 적은 논점은 수업을 들으면서 표시를 해두었다가, 해당 부분만 기본서에 "실수 하지 않기, 누락 자주 함, 이 판례 결론 반대로 감" 등을 적었고, 책에 없는 판례는 답안을 잘라 붙이고 회독할 때 외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 4. 답안지학

기득 이상의 수험생분들은 민사소송법에 공부가 비슷하게 많이 되어있어서 실력이 다들 비슷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어떤 주논점을 적어야 하는지가 명확



한 경우가 많으므로, 나름의 차별화를 보이기 위해 일관된 읽기 쉬운 답안 형식으로 적고 주논점까지 가기 위한 선결논점들을 최대한 많이 적으려 했습니다.

논점 정리의 경우 " ①갑의 취득시효 주장에서 점유개시시기가 변론주의에서의 주요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법원이 갑의 주장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식으로 작성하여 동그라미 숫자를 적어 내가 몇 개의 논점을 작성할지를 분명히 하고, 갑이라는 등장인물을 기재해서 최대한 문제를 풀어내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련된 법조문 또는 논점의 의의를 적었고, 이후 머릿속에서 기본서의 내용을 떠올리며 넓은 범위에서 내가 적으려는 판례가 속하는 소목차까지 순서대로 훑으며 강약조절을 하면서 기재하였습니다. 목차를 적을 때는 등장인물이 드러나고 답을 두괄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갑의 취득시효 주장 타당 여부- 적극" 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안 포섭에서도 ①②와 같은 동그라미 숫자를 적으며 글의 흐름을 호흡에 맞게 작성해서 채점하는 분들이 잘 읽힐 수 있게 하였고, 무조건 답에는 "따옴표" 표시를 하였습니다. 사안포섭은 3~4줄 정도 분량으로 적었습니다.

## 5. TMI

민사소송법은 남들이 다 같이 잘 쓰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하고, 논란이 있는 문제들은 적당히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올해 2-1번 설문에서 지적의무를 누락했고, 4-1번에 타겟 판례를 알지 못해 답을 반대로 갔음에도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는 문제는 적당히 쓰고 넘어가자라는 마인드로 시험을 운용했고, 덕분에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어도 침착하게 작성하였고 전체적인 답안지의 틀이 흐트러지지 않았기에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 특허법: 동차 16쪽- 49점, 기득 21쪽- 56점

### 0. 책 통암기

박형준 변리사님의 준특허를 기본서로 하며, 1월에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필기 단권화를 했고 2월에는 사례강의를 수강하며 단권화를 한 이후 본격적으로 통암기를 시작했습니다. 통암기 방법은 민소법과 동일하며, 책 제일 앞 목차 집을 보면서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를 떠올리며 판례 위치까지 암기 하였습니다.

### 1. 절차형 문제 대비

절차 문제는 gs와 사례집을 풀며 대비했습니다. 절차 문제야 말로 책 통암기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책을 머릿속에서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면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와 불가능한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gs에서 절차 문제가 크게 나왔을 때는 매번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절차 문제가 새끼 문제로 몇 개 나왔는데, 이때 머릿속으로 책을 넘기며 목차 잡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 2. 판례형 문제 대비

판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판례집을 보긴 하였으나, 판례집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진 않았고 박형준 변리사님이 판례 중간 중간에 넣으신 소제목들 위주로 보며 판례의 전체적인 흐름과 결론을 파악했습니다.

### 3. gs 등수

2월에 수강한 소수강의 gs에서는 뒤에서 5번째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책 통암기가 어느 정도 됐던 3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10~20% 대 성적이 나왔습니다.

### 3) 상표법

합격자 TIP. 상표 고득점 노하우	동차 17쪽-48.66, 기득 19쪽-62.33 점
<p>동차 때 50점대가 98명 밖에 없어서 48.66점은 상위 20% 안에 드는 성적이었기에 기존에 제가 하던 공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여 기득 때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제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 판례 위치 암기 2. 정확한 판례 현출 3. 판례 사안포섭 흐름 그대로 적용하기</p> <p>1. 판례 위치 암기 이 역시 책 통암기를 통해 암기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의 경우 논점이 모호해서 어떤 판례를 써야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점 하에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책 통암기를 통해 기억하고, gs에서 논점을 찾고 머릿속으로 논점 하에 있던 판례들을 떠올린 후 적는 방식입니다.</p> <p>저는 기본서는 최지환 변리사님의 테마 상표법을 봤기에 테마 상표법을 예로 들자면, "상표의 사용" 테마 하에 다음과 같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p> <p>I. 서설 II. 형식적 의미의 상표 사용 1. 표시행위 - sony 판례 2. 유통행위 - 맨하튼 페시지 판례 3. 광고행위 - VSP 판례 III.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 1.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사건에 있어서의 상표 사용- 상표 사용 의미, 판단기준 판례 2.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 (1) 순수한 설명적 사용 (2)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 아가타 판례, 포트메리온 판례 (3) 순수한 제호로서의 사용- 리눅스 판례, 진한커피 판례</p> <p>이하 생략</p> <p>따라서 문제에서 상표의 디자인적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생각의 흐름이 "상표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 -&gt; "상표의 사용의 의미는 크게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사용이 있지" -&gt; "디자인적 문제는 실질적 의미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gt;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먼저 써서 이하 나오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 실시하고" -&gt; "결국 최종 타겟인 아가타 판례와 포트메리온 판례를 써주면 되겠구나"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타겟 판례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답안을 쓸 때도 타겟 판례가 속하는 가장 큰 테마부터 시작해 선결 논점들을 쳐주고 가장 마지막에 타겟 판례를 적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판례집을 보시면, 디자인적 사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동일한 흐름대로 판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2. 정확한 판례 현출 상표의 경우 민소나 특허에 비해 같은 판례가 다양한 사례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에 대법원 판례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암기에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다만 양이 적으면만큼 정확한 판례 현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두문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특허법원의 경우 외우지는 않고 눈에 익혀두는 정도로만 하였습니다.</p> <p>3. 판례 사안 포섭 흐름 그대로 적용하기 모든 판례의 사안 포섭 흐름을 암기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gs에서 집어주는 당해연도의 주요 판례나 최신 판례 정도는 사안 포섭 흐름은 암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60회에 나온 데이터 팩토리 판례, 마스미 판례, 후지필름 판례 등은 GS에서도 자주 나왔던 주요 판례이긴 하나 해당 판례를 통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판례집을 보며 해당 판례들의 사안 포섭 흐름을 암기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지 필름 판례의 경우 ① 후지 필름의 주지저명도 ② 1회용 카메라의 "miracle" 요부 여부 ③ 필름의 본질적 부분 여부 순대로 사안포섭을 하고 있었기에, 답안에도 이 순서대로 사안포섭을 하였습니다.</p> <p>4. 그 외 공부 테마 상표법을 기본서로 보되, 답안 형식은 한경훈 변리사님의 스타일이 더 맞아 한경훈 변리사님의 gs를 들으면서 답안지를 많이 차용하였습니다. 목차는 깔끔하되 문제를 푼 흔적이 드러나야 하고, 목차만 봐도 채점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 서술하시오"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목차에도 물어본 바를 현출하여 "을의 주장 타당 여부- 소극" 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gs는 한경훈, 김세원, 최지환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하였으며 gs마다 등수 편차가 큰 편이었으나 대체로 10~20 % 대의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p>	

### 3) 디자인보호법 (동차 18쪽-60.33점, 기득 19쪽-61점)

디자인보호법도 동차 때 암기량이 가장 적었어서, 책 통암기를 적용했던 과목이었고 실제로 동차 때 디자인보호법 고득점을 받았기에 기득 때도 동일하게 책 통암기를 통해 암기했습니다.

그나마 동차 때 공부를 많이 해뒀어서 기득 때는 3월 말부터 공부를 했고, 정다운 변리사님의 판례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볍게 전체 내용을 회독하였습니다. 쓰기는 정다운 변리사님의 실전 qs를 1세트만 썼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쓰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세트만 마스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V. 수험생활 일반

### 1. 건강관리, 멘탈관리 (슬럼프와 극복방법 등)

#### (1) 건강관리

워낙 건강 체질이라 특별히 아팠던 적은 없습니다. 매일 건강한 식사를 하려 했고, 끼니를 걸렀던 적도 없었습니다. 영양제는 비타민 C 챙겨먹었습니다. 동차 때를 제외하고서는 헬스장을 주기적으로 다녔고 주2~3회 한시간씩 유산소운동을 위주로 했습니다.

#### (2) 멘탈관리

동차 때 슬럼프가 크게 왔었는데, 슬럼프가 왔던 요인은 2가지였습니다. 1차 때 과하게 열심히 한 것과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인데, 아마 대부분의 동차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실겁니다. 나만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일까 걱정이 많을텐데, 오히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의 증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 2. 공부장소, 생활리듬

#### (1) 1차 시기 (초시생의 열정)

공부 장소: 1차 시기는 2월~6월까지의 학교와 병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로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지켜봐줘야 자극받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딱 막힌 독서실보다는 개방형 스터디카페가 더 잘 맞았습니다.

생활 패턴: 제일 열심히 할 때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헬스장을 다녀와 운동과 함께 샤워를 마친 후 8시부터 착석해서 정오까지 공부했고, 집에서 한 시간 점심을 먹은 후 1시부터 6시까지 공부하고 저녁을 집에서 한 시간 먹고 다시 7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대략 7월부터 10월까지의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했고 이후부터는 운동은 생략하고 아침 8시부터 착석하고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대략 2주에 한번 씩은 약속도 나가고 크리스마스 홈파티도 열면서 나름의 일탈을 하긴 했으나 2월 까지는 이런 패턴을 쭉 유지했습니다. 후술하겠으나 이런 공부 패턴이 1차 초시 합을 가능하게는 했으나 2차 동차 때는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하루에 평균 11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 1차 때는 공부 관련 스터디보다는, 생활형 스터디를 주로 했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1차에 합격할 수 있는지 감이 전혀 없었기에, 그저 스터디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름의 기준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품타 어플을 이용한 공부 시간 인증 스터디, 주간 계획 인증 스터디 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에 목표를 두며 스터디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형 스터디를 하실 때는 친한 친구랑 하다보면 어느 정도 눈감고 벌금도 안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2) 2차 동차 시기 (슬럼프)

공부 장소: 동차 3~4월이 슬럼프였던 만큼 공부방향도 안 잡히고 방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장소도 거의 달마다 한 번씩 옮겼던 것 같습니다. 동차 시기에만 스터디카페를 3번 바꾸고 결국 시험 2주 전부터는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생활 패턴: 의지가 넘쳤던 1차 시기와는 달리 동차 시기에는 책상 앞에 앉는 것 자

체가 힘들었기에, 늦잠도 많이 자고 공부 시간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평일에는 대략 오전 9시~10시 사이에 착석하고 저녁 10시 쯤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책상 앞에 앉아 열품타 시간만 재며 하루종일 웹툰과 유튜브를 본 날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보다 했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당시 너무 많은 힘을 1차에 쏟아서 슬럼프가 길게 왔던 것 같습니다. 4월부터는 주말에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듣고 복습을 마친 후 남은 시간에는 쉬었습니다. 슬럼프였던 3~4월에는 평균 8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5월부터는 주말에 쓰기 스터디를 했어서 다시 열정을 갖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5월에는 평균 9시간, 6~7월에는 평균 10시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5월에는 쓰기 스터디와 캠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쓰기 스터디는 기득 이상의 분들과 스터디를 하기에는 제가 실력이 너무 갖춰지지 않았던 터라, 동차생 분들과 서로 답안은 첨삭하지 않고 쓰기 시간만 맞추며 감시하는 용의 스터디를 했습니다. 주말에 모여서 2시간만 각자 쓰고 헤어지는 스터디였는데 당시 동차였던 스터디원분들 모두 올해 기득으로 합격했습니다. 캠 스터디도 오전 착석과 공부 시간을 맞추기 위한 용도였고, 이후 기득 시험 직전까지도 해당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캠스터디도 올해 전원 합격했습니다.

6월에는 기득 이상의 스터디원분들과 함께했는데, 그 때의 마음가짐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습니다. 좋은 스터디원분들을 만나서 조언도 많이 얻고, 7월에는 해당 스터디원분들과 시간을 정해 디자인보호법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선택과목에 쓰이는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했습니다.

### (3) 2차 기득 시기 (공부 방향성 잡음)

공부 장소: 겨울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2월 말부터 시험 전까지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적다보니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공부 했었네요.

생활 패턴: 9월 초까지 여행을 길게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공부했던 건 11월 결과 발표 난 이후였습니다. 부모님이 기득 시기까지만 지원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8시~9시에 착석해서 오전 공부 3시간 하고 점심을 먹은 이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오후 공부와 저녁 공부를 했습니다. 또, 11월부터 6월까지 매주 2시간씩 화상과외를 했습니다. 공부의 절대적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으나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에 밀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 운동과 과외 같은 부가적인 활동들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동생 자취방으로 건너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역삼역 학원가로 가서 2월부터 6월까지 gs 수업을 두 개씩 듣고, gs 이후에는 스터디원들과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3gs를 진행했어도 스터디원들과 같이 있는 게 즐거워서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스터디: 2월부터 6월까지 쓰기 스터디를 진행했고, 2~3월에는 친구와 전화 암기 스터디를 하며 특허 상표 책의 목차 위치를 암기했고 5월에는 다시 암기가 부족한 것 같아 민특상을 2주동안 양을 정해 암기하고 a4에 목차와 판례를 쪽 적어가며 책을 통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3. 기타 (수험 기간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 가장 고마운 사람 등)

먼저 우리 뽕뽕이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2년 반의 수험 기간동안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길었던 공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더 멋진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저와 항상 투닥거리지만 웃음을 주는 친구이자 쌍둥이인 예진아 수험기간동안 재밌는 얘기를 많이 전달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마워 덕분에 즐거운 수험생활 했어.

또, 옆에서 응원해주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리고 천국에서 지켜보고 계실 친할아버지 몇 년 동안 잘 해낼 거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매번 잘해낼 거라고 말해준 친척분들과 사촌들도 감사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뛰어난 통찰력으로 발자크의 능력을 확신했듯이, 나도 너를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해. 이게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이야.” 흔들리는 내게 확신을 심어주고 모든 수험 기간을 함께 해주며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준

도현아 고마워. 너의 모든 길을 응원하고 사랑해.

내 소중한 친구 민선, 경은아. 너희랑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했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나도 너희에게 그런 버팀목 같은 친구가 될게~ 힘들 때마다 기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년에 같이 가야할 나라들이 많아. 나라별로 계획 딱 세우고 있을테니 같이 가자!

내가 아끼는 성훈, 하린아~ 하린이는 T라서 잘 안우는 것 같은데 F라서 잘 울어주는 성훈아 고마워. 항상 나를 자극하고 너희 덕분에 더 좋은 나로 성장한 것 같아. 무덤까지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예원이, 주영이, 가현이, 소영이. 너네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같이 또 여행가자~생과부 앞앞반 친구들, 그리고 뽀후 유진이도 너무 고마워 내 대학생활은 너네로 가득 찼어.

무엇보다 수험생활하면서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났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1차 공부했던 민지 언니 항상 응원해! 동차 때 끝가지 포기하지 않게끔 많은 도움을 줬던 디보 스터디 언니 오빠들. 멋진 언니 오빠들의 뒤를 쫓아갈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 수험 시기 롤모델이었던 동주 언니 진짜 고맙고 존경해. 특히 기득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태형 오빠랑 사과와 효정이, 그리고 민선아 주말동안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는 얘기를 했던 그 순간들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외롭지 않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공부를 해서 즐겁게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2년 반동안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예림다움을 잃지 않게끔 도와준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 VI.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변리사 시험을 제 스스로를 더 사랑해 주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앞서나가 있는 것 같아도 좌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독이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내 행복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수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도 각기 다른 계기로 진입을 하셨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다는 점은 모두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좌절하기 보단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용기를 내어 공부를 시작한 스스로를 사랑해주세요.

제 수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기를 읽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yerimtwins@naver.com](mailto:yerimtwins@naver.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